

LS 증권 주간 Global ESG News

LS 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주간 ESG 뉴스 2024.10.18~2024.10.25

구분	시장 동향
Energ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토지관리국, 퍼보의 지열에너지 프로젝트 승인 (2024.10.22, Power Engineering International) 미국 토지관리국이 지열 발전 스타트업 '퍼보 에너지'의 대규모 지열 발전소 설립을 승인. 동사는 작년부터 알파벳의 지원을 받아 지열에너지 프로젝트를 가동한 바 있으며, 메타 등 여타 빅테크 업체들도 데이터센터 전력 확보를 위해 지열에너지 개발에 더욱 주목하는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력 발전 산업 명목 현상에 2030 넷제로 달성 가능성 감소 (2024.10.23, 블룸버그) 최근 장비 공급 부족, 정부 승인 지연, 전력망 부족 등으로 풍력 발전 산업에 병목 현상이 나타나자 2030 넷제로 목표 달성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나타남. 상대적으로 투자가 집중된 태양광 부문 설비는 올해 약 +34%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나, 풍력 부문은 +5%에 그칠 것으로 예상
Govern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에너지부, SMR 기술 지원 위한 자금 조달 신청 (2024.10.21, ESG Today) 미국 에너지부가 최근 각광받고 있는 SMR에 대한 기술 지원을 위해 약 \$900M 규모의 자금 조달을 지원했다고 발표. 해당 부서에 따르면, 미국은 2050 넷제로 달성을 위해 700~900GW의 추가 전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정부, 넷제로 달성 가속화 위한 전력 수립 예정 (2024.10.22, 블룸버그) 영국 정부가 넷제로 달성을 가속화 하기 위해 국가 내 전력망 업체들과 전력 수립할 예정. 당 계획은 초기에 수소 등 재생 에너지 발전 및 저장 시스템에 초점 맞춰질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관련 계획에 대한 방법론 등을 개발할 것이라 언급
Corpor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우스웨스트 항공, 발레로 에너지와 SAF 추가 계약 체결 (2024.10.18, 로이터)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에너지 기업 '발레로 에너지'와 SAF(지속가능항공유)에 대한 신규 구매 계약을 체결. EIA 측에 따르면, 확대된 수요로 SAF 생산량이 늘어나 올해 바이오 연료에 대한 생산량은 +50%YoY 증가할 것으로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xtEra, Duane Arnold 원전 재가동 추진 중 (2024.10.23, 로이터) 미국 에너지 기업 NextEra가 폐쇄 원전 Duane Arnold 재가동을 추진 중. CEO는 관련 엔지니어링 연구와 함께 미국 규제기관과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언급
Fun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주요 연기금, 미국 주정부에 메탄 규제 촉구 (2024.10.21, AMWATCH) 글로벌 주요 연기금이 미국 주정부에 메탄 규제안 마련 및 시행을 촉구. (연기금: 스웨덴 AP7, 덴마크 Sampension 포함 35개, 미 주정부: 콜로라도, 루이지애나, 뉴멕시코, 펜실베이니아, 텍사스, 유타, 와이오밍 주) 연기금 측은 미국 석유 및 천연 가스 산업의 메탄 배출량 감축을 위해 구체적 움직임이 필요함을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OPF, 석탄/타르샌드/담배 부문 투자 철회 결정 (2024.10.22, IPE) 영국 연기금 OPF이 석탄, 타르샌드, 담배 생산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철회할 계획. 이와 더불어 유엔 인권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무기 생산 기업에 대한 투자 역시 재고 중. 이는 2050년 넷제로 달성 목표 달성을 위한 결정. OPF 측은 장기적 투자이익 보호를 위해 ESG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위스 PKTG, 자연재해 대비 자산배분 재조정 결정 (2024.10.23, IPE) 스위스 연기금 PKTG는 홍수·허리케인을 비롯한 자연재해 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 자산배분을 재조정. 일례로 보험연계증권(ILS)에 대한 노출도를 낮추고, 글로벌 부동산에 대한 자산배분을 축소. 반대로 올해 상반기 중 인프라 부문 투자를 확대해 전체 자산의 7.1%를 할당

자료: 언론보도, LS 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투자전략팀).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